

새 봄맞이 세시풍속

강 욱

자유기교가

세시풍속에서의 봄은 4계절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시작이므로 어느 계절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4계절 가운데 봄의 세시풍속이 가장 다양한데 특히 한 해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행사가 많았다.

음력 2월 초하루는 중화절(中和節)이다. 궁궐에서는 이날, 세상에 봄이 찾아온 것을 경축하는 뜻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이 때가 농사가 바로 시작되는 시기라 농사일을 권장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임금은 신하들에게 중화척(中和尺)을 나누어주었다. ‘중화척’이란 보통 때 쓰는 바느질자보다 조금 짧은 자인데 얼룩점이 있는 대나무나 붉게 물들인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다. 이 자를 나누어주는 이유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려 임금을 도우라는 뜻이다.

또 이 날은 집집마다 콩을 볶아 먹는다. 콩을 가마솥에 넣고 불을 피워 가마솥을

데운 다음, 콩이 타지 않게 나무 주걱으로 저으면서 콩을 볶는다. 이 때 어린이들은 “달달 볶아라, 콩을 볶아라, 새알도 볶고 쥐알도 볶아라, 달달 볶아라”하며 주문을 외다. 이렇게 콩을 볶아 먹으면 새와 쥐가 없어져서 곡식을 훔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볶은 콩은 식구들이 나누어 먹으며, 아이들은 좋아라고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니면서 먹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날을 기다리는데 배탈이 나는 어린이들이 많다. 그것은 욕심을 부려 볶은 콩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다. 2월 1일에 콩을 볶는 것으로 가을 수확을 미리 점치기도 하는데, 콩과 보리를 섞어서 한 되를 솥에 볶는다. 다 볶은 다음 되에 다시 담아보는데 한 되가 더 되면 풍년이 들고 한 되가 못되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2월이 되면 농촌의 일손이 바빠진다. 논과 밭을 갈아 농사지를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맨 먼저 겨우내 굳은 채로 있던

논이나 밭의 흙을 파서 뒤집고, 뭉쳐 있는 흙덩이를 잘게 부수어 공기가 잘 통하고 거름이 잘 배어들게 해준다. 이래야만 새로 심은 곡식이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새봄 들어 처음으로 흙을 갈아엎어 주는 일을 초경(初耕), 또는 애벌갈이라고 부른다. 애벌갈이를 할 때는 밭이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으면 쟁기질도 남북으로 하지만, 이 때에는 먼저 동서로 몇 골을 갈고 난 후 남북으로 갈기 시작한다. 초경을 이렇게 하는 것은 풍작을 비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풍속이다. 그래야만 밭곡식이 잘 자라서 풍년이 든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시골에는 ‘품앗이’라는 것이 있다. ‘품’을 앓아온다는 것으로 이쪽의 장정이 저쪽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 이쪽에서 요구하는 날에 저쪽에서도 장정이 하루동안 와서 이쪽 일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온 동네에서 품을 앓고 갚고 하여 협동하여 농사를 짓는데, 어른은 한 사람 몫으로 온 품을 치지만 아이는 반 사람 몫밖에 쳐주지 않는다. 즉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을 이쪽 아이는 이틀을 해 주어야 저쪽 품을 갚게 된다.

이러 던 것이 그해에 스무살이 된 머슴은 완전히 성인이 되어 어른 대접을 받으며 행세할 수 있다. 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된 머슴들은 이 때 선배 머슴에게 한 톱을 내고 하루종일 흥겹게 논다. 주인은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머슴들을 배불리 먹이고 위로하는데 농가에서는 이 날을 ‘머슴날’이라고 한다.

음력 2월 1일에서 2월 20일까지 경상도 지방과 제주도 지방에서는 ‘바람 올리기’ 제사를 지낸다. 이 제사는 ‘영등 할머니’라는 바람 신을 위한 제사로 영등제(靈登祭), 또는 연등제(練燈祭)라고도 부른다. 영등 할머니는 하늘에서 사는 바람과 날씨를 담당한 신이다. 그 할머니는 매년 2월 1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땅 위의 곡식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보살펴주고는 20일 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땅으로 내려올 때에는 며느리나 딸을 데리고 함께 온다고 한다. 만약 딸이 함께 오면 그 때의 날씨가 맑고 온화하지만, 며느리가 함께 올 때면 날씨가 궂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농가에서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때의 날씨가 맑은가 궂은가를 따져보아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될까, 흉년이 될까를 짐작한다. 따라서 농부들은 영등 할머니가 내려올 때 딸과 함께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음력 2월 달에는 24절기의 하나인 경칩(驚蟄)날이 들어 있다. 경칩이란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그 밖의 동물들, 특히 파충류들이 봄이 온 것을 깨닫고 놀란 듯이 땅위로 튀어나온다는 것을 한자어로 표현한 말이다. 대개 양력으로는 3월 5일을 전후하여 들어 있는데, 이 무렵에는 날씨가 따듯하여 초목의 싹이 돌아날 때이다.

이 때 땅 속에서 나온 개구리들은 논이나 도랑 같은 물이 피어 있는 곳에 알을 낳는데, 농촌에서는 경칩 날에 알을 건지는 풍습이 있다. 이것은 개구리의 알에는 몸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있다 하여, 이 알을 건져다가 몸이 약한 사람에게 먹이고, 또한 몸을 더욱 튼튼히 보호하기 위해 병이 없는 사람들도 흔히 먹는다.

또 경칩 날에는 흙으로 집안의 금이 간 벽이나 허물어진 담 등을 쌓기도 한다. 이것은 경칩 날 흙일을 하면 사고가 없다는 말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어떤 집에서는 벽 전체를 새로 바르기도 하는데, 이 때는 벽 틈에 숨어 있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집안이 깨끗해진다.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물에 재를 타서 그릇에 담아 방 네 귀퉁이에 놓아두기도 하는데 그러면 빈대가 없어진다고 한다. 또한 단풍나무를 베어 그 베어난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면, 위장병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약으로 먹는 풍습이 있다.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며칠간은, 봄인데도 바람이 매섭고 눈이 내리는 수도 있어 갑자기 겨울로 되돌아온 것 같은 때가 매년 있다. 이것은 봄이 찾아와 나무에 새움이 트고 꽃봉오리가 부풀어오르니, 바람의 신이 샘이 나서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마지막 힘을 다하여 매서운 바람을 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의 바람이나 추위를 ‘꽃샘바람’, ‘꽃샘추위’라고 부른다. 꽃샘바람은 어떤 때는 겨울 바람보다 심할 때도 있어 ‘꽃샘바람에 큰 독이 깨진다’는 속담도 생긴 것이다. ☹️